

“훼불방지 종교계 나서자”

종교인 평화회의 '종교화합 워크숍' 10월경 개최 검토 | **'국민정부 종교편향' 훼불만행 척결 법회' 8월8일 조계사서**

종교인 평화회의(공동위원장 송강, 원혜스님)는 22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비상 전체 대책회의를 열고 (가칭)종교화합 워크숍을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에 제안하여 공동으로 10월경 개최하기로 했다. 종교편향대책위의 제안에 대해 종교인평화회의의 변진홍사무총장은 “우리 사회의 종교화합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워크숍 개최를 대학원에서 중

산중총회법 공청회 8월말로 연기

조계종 중앙총회는 8월 4일 개최하기로 했던 산중총회법 개정관련 공청회를 8월 말로 잠정 연기했다. 중앙총회는 “교구본사 주지 선거의 존재를 논의하는 공청회인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득이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10일경 열릴 예정이었던 제133회 임시중앙총회도 8월말 공청회 이후로 함께 연기된다.



동화사 '산사음악회'

일본군위안부기념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산사음악회가 18일 오후 대구 동화사 통일대전에서 1천여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 김영동씨등 국악인들이 출연, '영산회상' '아침의 소리' 등 10여곡을 연주했다. 음악회에는 동화사 주지 성태스님, 문화재단구시정, 후원대니들이 참석해 일본군위안부기념관 건립에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실상사 장기귀농학교 첫 개설

유기농 직거래장 2곳도...도농공동체 추진본부 곧 결성

장기귀농학교가 실상사에서 국내 처음으로 개설된다. 또 서울 영화사와 목동에서 유기농산물 직거래매장의 개설과 가칭 '불교 도농공동체 추진본부' 결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불교귀농학교(교장 도법)는 8월8일 제2기 불교귀농학교 기초교육과정을 개설한데 이어 8월24일 지리산 실상사에서 장기귀농학교의 문을 연다. 또한 불교생활공동체연합운동의 일환으로 8월22일 영화사·목동 유기농산물직매장을 오픈한다. 이예앞서 불교귀농학교는 7월26일 실상사에서 '불교 도농공동체 추진본부'와 관련한 운영위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결성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귀농운동본부(본부장 이병철)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장기귀농학교는 전국귀농운동본부 등 전국 7개 귀농학교(이론 및 3박4일 과정)의 단기 현장실습으로 운영)의 기초과정 수료생 25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실시된다. 불교 생활운동의 이점과 함께 불교귀농학교는 정교로 기록될 장기귀농학교는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 등으로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을 열게 되어 더욱 눈길을 모으고 있다.(관련 인터뷰 3면) 이와관련 불교귀농학교는 정부(전북도)에 실상사를 '실직자 재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장기귀농학교 소요예산 7천여 만원의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 영화사 등에 개설되는 유기농산물 직거래매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매개로 한 소비자생활운동의 단초로서 '불교 도농공동체 추진본부'가 결할 주요사업의 하나. 유기농산물 직거래매장을 설치한 도농공동체 생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법외를 정기적으로 열고 매장이용을 돕는다 시 불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환경 포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골수리고 있는 북한 동포를 도와 주세요”
 토요일 오후 1시,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부산역 광장에 모여든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흰색 모금함, 대형 사진들은 광장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
 잠시후 젊은이들은 광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모금 활동을 벌이는 때, 북한의 기아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설명하는 때로 각각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나뉘어 즐긴다.
 지난해 4월부터 부산역 광장에서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볼 수 있는 이 광장의 주인공들은 바로 대한불교 부산지부 회원들.
 “처음에는 부산역 노숙자들의 대안 솔루션에 관심을 치루어야 했어요. 자신들은 굶고 있는데 왜 북한동포를 돕느냐는 것이죠. 심지어는 광장이 어수선하다며 사진을 빼앗고 꽃아내기까지 했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던가! 부산지부 회



원들이 15개월간의 거리 모금으로 마련한 기금은 총 4천만원. 이 성금은 수차례에 걸쳐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적십자로 전달됐다. 전달식때마다 회원들은 이같은 모금활동이 단순한 자선의 의미를 뛰어넘는 것임을 절감한다.
 대한불교 부산지부의 거리모금 활동은 북한 기아 해소에 한 몫을 담당할 면도 있지만, 젊은 불자로 서 부처님 가르침을 되짚어 생각할 계기도 됐기 때문이다.
 중국의 연변시와 장백시를 직접 방문해 남북자들에서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굶주림의 실상을 생생하게 들으며 함께 부푼기 안고 울었던 일혜진씨(부산지부장).
 ‘저희도 매주 금요일 점심 한끼를 굶고 동포들의 배고픔을 걱정해요’라는 한마디에 ‘고맙다’며 흐느끼며 울던 탈북자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일혜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스승이며 부처입니다”라며 “그래도 모금운동이 끝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 날은 북한의 어린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배부리 먹는 날이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모금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오종욱 기자 (gobuoo@buddhapia.com)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

스님과 재가불자를 위한 승복, 우리웃의 전당

가사야가 사부대중께 개업 인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사야
723-9714

가사야 대표 김 여여성 합장

신심을 들을 수 있는 제품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지나실 때라도 들려주시면 따뜻한 차한잔의 여유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야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7번지
Tel : (02)723-9712

← 안국동 4거리 →

조계사 성종사 신원은행 제주은행 종각 →

평화당 인 쇄 현대불교 신문사